

세계인-우리는 이렇게 산다



알링턴 성인교육센터의 한국어강좌에서 박명은(앞줄 가운데) 강사가 학생들과교재를 읽고 있다. 한국어강좌는 대기자 명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다. 알링턴(미 버지니아주) 이도운특파원 dawn@seoul.co.kr

“18~98세까지 평생교육 책임”

교육센터 대표 모튼·프로그램 담당 마토스

컴퓨터 게임은 심혈을 기울여 개설 했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다. 아마 성인들이어서 그런 것 같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성인교육센터 최고책임자인 마이클 모튼과 프로그램 담당자인 라울 마토스는 “교육은 학교를 떠난 뒤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면서 ‘어른들이 젊은 이들과 훨씬 진지한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성인교육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민들이 직업을 찾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꼭 공식적인 학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평생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인들은 17세가 되면 K12(유치원에서 12학년, 즉 고등학교 3학년)를 마친다. 대학에 가지 않는 18세부터 98세까지의 교육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성인들은 60, 70세가 돼 은퇴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교육과 성인교육의 차이는.
-학생은 학교에 의무적으로 가야 하지만 성인들은 자기가 좋아서 또는 필요해서 이곳에 온다. 학교와 이곳 양쪽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곳에서 수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모두가 열심히 배우려 하기 때문이다. 또 교재만 해도 학교에서는 정해진 것을 써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강사가 꼭 필요한 것을 직접 제작한다.

▶요즘 인기있는 강좌는.
-취미나 재미로는 요리와 목공이 인기가 좋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컴퓨터와 영어 등 인이다. 최근 들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라틴어 등이 새로 개설됐다. 언어의 경우는 세계 여행을 하기 위해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 또 집값이 뛰면서 주택금융 관련 강좌에도 관심을 보이고, 취업난 때문인지 컴퓨터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수업에도 사람이 늘고 있다.

▶프로그램은 얼마나 자주 바꾸나.
-우리 센터는 1년에 4개월씩 3학기의 강좌가 있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프로그램도 조금씩 바뀐다. 학생들이 기뻐하면 등록을 적게 하면 강좌가 취소되고, 특정 수업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많으면 이를 수용한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 몽골인이 늘어나면서 몽골어 강좌도 생겼다. 우리 센터에만 몽골 학생이 300명가량 된다. 보통 한 학기마다 20%는 바뀌는 것 같다.

▶강사는 어떻게 충원하나.
-우선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고, 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관련 강좌를 맡아준다. 또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여러 수업에 자원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강사를 구한다.

▶필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나.
-각 강좌의 수업료는 강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으로 설정돼 있다. 대부분 선생님들의 강의료이다. 건물유지와 전기, 수도 등 관리비는 알링턴의 학교들로부터 지원받는다. 학교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알링턴 주민 가운데 K12 학생이 있는 가정은 12%뿐이다. 따라서 학교가 나머지 88%를 위해 재정을 분담하는 것이 어찌어찌 맞는다고.

▶한국에서 이같은 성인교육 제도를 만든다면 정부와 지역, 학교, 기업 가운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나.
-한국의 교육현장을 잘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누구든 의욕과 동기를 가진 쪽이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누가 됐든 ‘학교 시설을 이용하라.’는 조건을 하고 싶다.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 같은 시설에서 낮에는 학생들이, 밤에는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이민자 연착륙 돕는 ‘인큐베이터’

미국 알링턴 성인교육 현장

지난 19일 저녁 7시.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클레어렌드 중심가에 자리잡은 ‘알링턴 성인교육센터’를 방문하자 3층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톨 로이스 야간국장이 반갑게 맞아줬다. 로이스 국장은 기자를 ‘이베이에서 물건 사고팔기’라는 제목의 강좌가 열리는 213호 강의실로 안내했다. 컴퓨터와 인터넷 전문가인 찰스 매콜이 중년의 남성 1명, 여성 4명과 함께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이베이에 접속,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을 실행해보고 있었다. 로이스가 “한국에서 온 기자가 수업을 참관하고, 촬영도 하고 싶어한다.”고 양해를 구하자 한 여성이 “안녕하세요.”라는 또렷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은퇴자 재취업·중산층 취미강좌도 인기

대선토론·월드시리즈 때도 강의실 북적

▶알링턴(미 버지니아주)이도운특파원 | 이 강좌에서는 매일 수억개의 상품이 새로 올라오는 이베이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상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등 매우 실용적인 내용의 강이 진행되고 있었다. 수강자들은 주로 은퇴한 뒤 이베이에 작은 사업을 구상중이거나 창고에 쌓아둔 물건들을 처분하고 가의 소득도 올리려는 중산층 백인들이다.

교육센터 2층과 3층에서 진행되는 영어와 컴퓨터 기초과목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아시아와 중남미,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다. 알링턴 성인교육센터 관계자는 “영어와 컴퓨터 등 직업교육에는 이민자들이, 취미교실에는 미국의 중산층 주민들이 주로 참가한다.”고 말했다.

▶하루에 두번 문 여는 학교
다음날인 20일 오후 7시. 알링턴 카운티 볼스톤에 자리잡은 워싱턴 리 고등학교 사방에 어둠이 깔렸지만 교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이 학교는 하루에 두번 문을 연다. 오전에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녁 7시에는 성인 학생들을 위해서다.

프랑스 태생인 프란 벨 심스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채화 그리기’는 최고 인기 강좌다. 수업 중인 127호실로 살짝 들어가자 심스 선생님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아마추어 화가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도화지에 스케치와

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학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과목은 스페인어 강좌.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의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미국내에서 스페인어의 효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히스패닉족의 의상을 차려입은 조시 사르미엔토 선생님이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급 스페인어 문법과 회화를 가르치고 있었다. 대통령 후보간의 TV토론이 벌어지든, 메이저 리그 월드컵이 열리든 이 강의실에서는 빈 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한국어강좌에는 대기자 명단도
스페인어 수업이 진행되는 116호실 건너편의 117호실에서는 한국어 강의가 한창이었다. 사학을 전공하던 대학시절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박명은씨가 하와이 대학에서 출판한 ‘Integrated Korean(통합 한국어)’이라는 교재로 수업한다. 강좌는 정원 12명을 채우고도 현재 5명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다. 박씨는 “한국에서 임양했거나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람 등 우리나라와 직접 인연이 있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수한 미국인 학생”이라며 “한국인 여자 친구를 둔 남자도 있고, 직장의 한국인 동료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려고 우리말을 배우는 미국인도 있다.”고 학생들의 구성을 설명했다.

▶이민자 미국화하는 용광로 역할

알링턴 성인교육센터는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교육센터가 보관중인 1952년의 카탈로그에 따르면 당시의 주요 강좌는 이민자들을 ‘미국인화’ 하기 위한 영어교육과 미국인들의 실생활을 돕기 위한 속독·속기와 전기 등 기술관련 분야의 재교육이었다. 현재도 그같은 교육목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강좌가 다양해지고, 미술 등 취미관련 강좌가 늘어났을 뿐이다.

워싱턴 리 고등학교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출신인 리더 라투바니아(38)는 “7년전 이민왔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계속 고생하다 몇년전 교육센터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뒤 세븐일레븐에 취직했다.”면서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성인교육센터에서 대학수준 강좌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알링턴 성인교육센터가 제공하는 강좌는 가을학기 260개, 겨울·봄 학기 230개 등이다. 교육은 클레어렌드의 본부를 중심으로 알링턴 각 지역에 산재한 2개의 직업센터와 7개의 학교에서 이뤄진다. 강좌에 참가하는 학생수는 1년에 6500명 정도.

보통 2~3달간 일주일에 한번 2~3시간 정도씩 수업을 하며 적게는 32달러에서 많게는 292달러의 수업료를 낸다.

교육센터측은 최근 들어 ▲수업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50세 이상 성인 남녀가 함께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사교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와서 같은 시간대에 각각 필요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중이다.



알링턴 성인교육센터의 대표인 마이클 모튼(왼쪽)과 프로그램 담당자인 라울 마토스. 두 사람은 성인들에게 직업과 취미를 찾아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도운특파원 dawn@seoul.co.kr

로봇경품게임기

좋은 아이템은 성공합니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5,000억 시장 길거리 게임! 나도 사장님!

제품특징: 걸어다니는 인간 로봇을 직접 조종하여 전진, 후진, 좌우회전 시켜 로봇의 손을 이용하여 경품을 집어 투출구에 넣어 경품을 얻는 게임방식

www.samsungaw.com

게임의 즐거움과 고수익을 안겨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 또는 부업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무점포,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철저한 본사의 마케팅에대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제품명: 싸이원(SSAI-1)
규격: 800mm * 1100mm * 1200mm
사용화폐: 10,000원, 5,000원, 1,000원권 지폐 / 500원, 100원 주화

(주)삼성어뮤즈월드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에이스트원타워1차 806호

지사,대리점 개설문의
(02)6675-5600